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매천 황현(黃玄:1855~1910)은 조선의 마지막 대표 시인이면서 우국지사였고 또 뛰어난 역사가였다. 그의 문집 '매천집'(梅泉集)을 읽어 보면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또한 그의 역사책 '매천야록'은 춘추필법에 의한 직필(直筆) 사관(史觀)으로 조선 말기의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명저 중의 명저이다.

우리는 조선의 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평대군이나 한석봉이나 추사 김정희를 거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매천은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호남에도 그런 분들에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은 큰 서화가들이 뛰어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송송재 이후로 이장암에다가(宋松齋 後李蒼岩)/ 벽화까지 세 분이 세 솜발처럼 나란했네(鼎足參差筆下三)/ 조선의

호남 서화(書畵)의 찬란한 맥(脈)

서에게 천년을 따져 보면(論定千秋東筆苑)/ 우리 호남 뒤지지는 않으니(未應寂寞我湖翰)"

곡조벽하(哭趙壁下)라는 제목의 추도 시에서 매천은 분명히 밝혀 주었다. 호남 출신인 매천은 '우리 호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호남에도 세상에 뛰어난 서예가들이 있었다면서 송재 송일중(宋日中: 1632~1717), 장암 이삼만(李三旻: 1770~1847), 벽하 조주승(趙周昇: 1854~1935)등 세 분 서예가의 업적을 현양하였다.

송재 송일중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669년 현종 10년 진사과에 급제하고, 1713년 숙종 39년에는 82세의 노인으로 통정대부까지 오른 분인데, 글씨에 뛰어난 조선의 송중대왕이 그의 글씨에 극찬을 했을 뿐 아니라, 청나라의 강희제도 극찬하여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서예가였다. 고창 출신의 뛰어난 실학자이자 유학자였던 이재 황윤석은 송재 '형장'에서 "조선의 비단(비석과 현판)은 대부분 그가 썼으며 중국으로 사신 가는 사람들이 송재의 글씨를 선물로 가지고 가서 조선에도 이런 글씨가 있다고 자랑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숙종대왕도 "송재 글씨는 송백이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다"라고 했더니 송재는 조선과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서예의 대가였을

을 알게 해 준다.

장암 이삼만은 정음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명필로 알려졌던 이광사(원교)의 필법을 배워 아무리 몸이 아픈 때에도 하루에 천자(千字)의 글씨를 써서 베풀어 세 가 세 구멍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초서와 행서에 능해 추사 김정희도 그의 서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3남 지방 사찰의 현판은 대부분 그의 글씨로 알려졌다.

벽하 조주승은 매천 황현의 친구로서 서예와 묵화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제 출신으로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의 문인으로 학문도 높았고 서화까지 뛰어났는데, 당시 '석파란'으로 유명한 화가 흥선 대원군이 그의 글씨와 죽란을 평하여 '장란벽죽'(倉蘭碧竹)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글씨는 스승 이정직보다 낫고, 대나무는 자하 신위보다 낫다고 평하기도 했다. 지금 전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법주사 일주문의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 이른 글씨로 알려졌다.

벽하 조주승의 글씨에 황현은 정말로 의미 있는 평가를 내렸다. 앞에서 인용한 시의 다른 구절에서 "형식 답습이야 버리고/ 정신을 위주로 했네"라고 말하며 글씨 쓰는 법도나 형식에 얽매이기로 다는 정신 위주의 글씨 즉, 혼을 불어넣

은 글씨를 썼다고 했다.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다. 호남의 서예가들은 법도에 따르는 글씨보다는 서예가 자신의 혼이 글씨에 깃드는 그런 글씨를 썼다는 것이다. 혼이 없는 글씨를 쓴 서예가들에게 매천 같은 의인이자 지사(志士)가 어떻게 찬양의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매천은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한 독한 시인이었다. 그런 시인이었기에 글씨의 기교보다는 글씨에 담긴 작가의 혼을 읽을 수 있었고, 혼이 담긴 글씨를 보며 높은 찬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글씨와 그림, 시나 문장 그림 모든 예술에는 작가의 혼이 서려야 한다. 재봉 고경명은 왜놈들과 총칼로 싸우다가 금산 전투에서 순국했는데 그의 시에는 그런 혼이 담겨 있다. 백호임제는 당파 싸움과 간신배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하여 벼슬을 던지고 전국을 유람하며 시를 읊다가 세상을 떠났다. 임제 또한 그런 혼이 담겨 있는 시를 지었기에 대시인으로 칭송받는다. 오늘의 예술가들 역시 혼이 담긴 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 적극 지원해야

히말라야에서 또다시 전해진 비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창호(49) 대장을 포함한 한국 산악인 다섯 명이 네팔 구르자히말(7193m) 원정 도중 변을 당한 것이다. 김 대장은 아시아 최초로 산소를 쓰지 않고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등반가다.

네팔의 구르자히말을 오르던 중 실종된 김 대장 등 한국인 다섯 명과 네팔인 가이드 네 명의 시신은 그제 새벽 해발 3500m의 베이스캠프 주변에서 발견됐다.

원정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 봉우리 남쪽 벽을 직등하는 새 루트 개척에 도전 중이었다. 이들은 예초 12일 하산할 예정이었으나 내려오지 않자 남아 있던 동료 4명이 네팔인 가이드를 올려 보내면서 베이스캠프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대원들은 전날 밤 거대한 눈폭풍으로 캠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대장은 광주와도 인연이 있다. 지난

2005년 광주시산악연맹이 꾸린 '낭가파르BAT(8125m) 루팔대장벽 원정대' 대원 12명 중 비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라인홀트 매스너 이후 35년 만에 정상에 밟으면서 8000m급 14좌 레이스를 시작했다. 김 대장은 당시 매스너가 정상에 남겨 놓은 타임캡슐을 가져와 광주일보에 알리기도 했다.

만년설 뒤덮인 히말라야의 '하얀산'은 산악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지만 그 곳을 지배하는 폭풍설과 눈사태 등은 끊임 없이 생명을 위협한다. 하지만 약조건을 극복하고 '죽음의 지대'를 넘어선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다. 이번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 또한 우리의 희망이었다.

어제 구조 헬리콥터가 투입되면서 시신 수습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산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신 운구와 장례 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프링클러 없는 특수학교·유치원 많다니

광주·전남 지역의 각급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교나 유치원 등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장애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특수학교 5곳 중 3곳, 전남은 특수학교 8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에도 안전 인프라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 127곳 중 10곳(7.8%), 전남 436곳 중 20곳(4.5%)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설치율이 극히 낮았다.

초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광주 154곳 중 24곳(15.5%), 전남 491곳 중 37곳(7.5%)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광

주 89곳 중 16곳(17.9%), 전남 259곳 중 30곳(11.5%)이었다. 고교는 광주 66곳 중 26곳(39.3%), 전남 143곳 중 32곳(22.3%)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신설 학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신설은 물론 기존 유치원에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방재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후 3분 안에 전체 시설로 불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스프링클러가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한다. 유사시 장애 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꿈꾸는 2040



최희용
위민연구원 상임이사·세무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현재까지 신문 방송에선 단 하루도 적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 농단은 나라가 다시 한 번 뒤집어질 내용이지만 나에겐 무디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얼마 전 6·13 지방 선거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우리 지역의 모든 단체장,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면 시의원 모두 민주당의 승리였다. 당선 전에는 시민만 보겠다면 후보들은 당선 이후 의장단 선출과 위원장 선출, 광주시 업무 보고에서 보여 주었던 추태들은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속된 말로 너무 쪽 팔렸다.

이제는 정치 개혁이다

우리는 사회 전반적인 적폐 청산과 개혁,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점에서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선거 제도의 개혁일 것이다. 현행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 한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다. 이는 51%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어 49%의 지지를 해준 유권자의 표심은 사라져버리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49%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 제도는 없는 것일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의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이는 오로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의 30%인 90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50석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40석을 채워 주는 방식인 것이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한 것인가? 선거법은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즉 국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구 의원 253명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면 적어도 비례대표 의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를 찬성할 리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만 늘리면 어떨까? 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숫자만 늘려 세금만 축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떤가? 즉 의석 수를 늘리되 예산은 늘리지 않고 1/1N을 하는 것이다. 그럼 국민들은 이해해 줄까? 모르겠다. 이는 정치하는 분들 몫으로 돌리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정치 공화국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는 각 정당의 당론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적극적인 찬

성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떠한가?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어찌 되었던 실제 속마음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라고 가정한다면 분명 한 것은 반대하는 정당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이다. 즉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반대하는 정당을 빼고서라도 개혁을 이루어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회가 평등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만 정의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정당들은 조속히 이를 추진하여 정치 개혁의 신평안 선거 제도 개편을 이뤄야 할 것이다.

기 고

‘협력’이란 이름의 미명(美名)



김태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콜라보라시옹!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가 유럽 정복을 획책하던 1940년 10월 30일, 당시 프랑수아 필리프 페탱 총리가 독일 히틀러 총통과 정상회담 후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 나는 협력의 길로 들어선다"고 선언하였다. '콜라보라시옹(Collaboration)'은 협력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다.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 '라 콜라보라시옹'을 열고 있다.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는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 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 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8개 섹션으로 나누어 '협력'이란 '미명'으로 대중을 현혹했던 나치 부역자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의 협력을 선택한 비시 정부 지도자들, 나치 찬양의 나팔수가 된 언론인과 문화예술인들, 나치즘의 파수꾼을 자처한 파리의 '콜라보들(협력자들)'의 다른 이름은 부역자들.

부역자(附逆者)!
그러나. 반역, 국가와 민족과 정의와 인권에 반역하여 불의에 빌붙은 자들이다. 왜 우리 역사에서 4·3항쟁, 연순항쟁, 5·18민주화항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양민이 희생됐는가. 그것은 친일 부역자들과 기록권 세력의 패악질 때문이다.

우리는 친일 부역자 청산에 실패하고 5·18학살 책임자 처벌도 못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과거 청산은 공소 시효나 무조건적 화해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프랑스는 나치 협력 혐의로 모두 35만여 명을 조사했고, 12만 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다. 이 가운데 1500여 명이 처형됐으며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1945년에는 약식 재판으로 처형된 사람도 9000여 명에 달했다. 지난 1964년 프랑스는 전쟁 중 민간인에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없애 1994년 유대인 처형에 관여한 폴 투비에는 중신형을, 1998년에는 모피스 파프은 10년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우리는 어땠는가.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고, 해방 후나 한 국전쟁 시기 양민 학살자들도 처벌하지 못했다. 5·18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 5·18로 인한 민간 피해자는 모두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5·18 당시 사망자 155명, 부상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인정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 부상자 1145명, 연행 구금자 1447명, 재분류 및 기타 118명 등).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형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대법원 선고 형량대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없다. 전두환을 포함해 겨우 16명이 그

것도 가볍게 죄값을 치렀을 뿐이다. 사실상의 5·18 총지휘자 전두환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751일 만에 풀려나 별정형 살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의 합작으로 전두환의 석방과 사면을 결정했을 때 우리 광주시민들은 피눈물이 났지만 용인해 주었다. 그것은 '동서회합', '화해'라는 '미명'을 쓰고 나타냈다. 화합과 화해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정략이 아니라 진실과 고백과 참회에 바탕을 둘 때 가능할 것이다.

파리의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과 광주의 '이제야 시작하는 5·18 청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프랑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 광주시민과 양심 세력이 다시 일어나 전두환을 광주와 민족사 앞에 고개 숙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5·18 해결의 첫 번째 원칙, '진상 규명'의 절실함을 되새겨 본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無 等 鼓

소설 '물레방아'는 1925년에 발표한 나도향(1902-1926)의 대표작으로, 당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다. 부호인 신치규는 자신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이방원의 아내를 꺾어 물레방앗간으로 불러낸다. 이방원은 물레방앗간에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목격,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결국 이방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결하는 불운한 운명에 처한다.

'물레방아'는 피폐한 현실과 전통적 성윤리의 변질을 인간 본능과 경제라는 문제와 결부해 형상화했다. 기층민의 비극적 이야기에

최근 배우 김부선과 작가 공지영이 나선 대화의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음성 파일에는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이 언급돼 있어 진실과는 별개로 희화화되고 있다. 김 씨는 이 지사의 신체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라고 하며 '법정에 갔을 때 죄악의 경우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작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연한다.

이 지사는 '신체를 검증받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의 진흙탕 싸움은 소설로 치면 절정 단계다. '중요 부위'라는 말이 주는 선정성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시중에는 '까만 점' 얘기가 한 편의 소설로 둔갑해 회자되는데,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중요 부위' 이야기가 꾸며 낸 말인지 실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증을 한다 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보다 '물레방앗간'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로 끊임 없이 소환될 거라는 데가혹함이 있다. 언젠가 그럴듯한 소설보다 훨씬 소설적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소설과 실재 사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예향부	220-0692
220-0664	220-0693	사진부	220-0693
220-0642	220-0697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